



Overweight (Maintain)

증권/보험

Analyst 김태현

02) 3787-4904 thkim@kiwoom.com

손보사들의 위험손해를 추이



주: 당사커버리지 4개사 합산 기준, 2017년은 6월 누적 기준

- 당사는 8월 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슈 분석

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긴 여정의 첫단추



전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내 예비급여 개념을 도입해 보장성 강화의 유연성을 획득했으나, 비급여의 급여화 의지는 어느 정부보다 강해 보입니다. 민영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다만, 정부의 취지와 의지를 감안 시 단기 호재보다 장기 악재가 많아 보이는 길에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완전 해소, 질환 구분 없는 보편적 보장과 의료사 회안전망 강화(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가 주요 골자다.

비급여 해소를 위해 1) 기존 급여, 비급여 체계를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로 세분화 하며 예비급여 개념을 도입했고, 2)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의료법 개정 필요)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2)신의료기술평가 통과한 항목에 대해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 편입과 3)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를 재정립(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3대 비급여 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한시적 시행으로 법 개정 필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등을 추진한다.

>>> 재차 시작된 첨예한 논쟁과 강한 정부 의지

9일 발표된 대책엔 정부 정책의 목표와 복지 강화 내용만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고 과정에서 치열한 이해다툼에 대한 논쟁 거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2년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8.5%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재원을 36.6조원이라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보장률 목표 70%와 계산된 필요 재원 30.6조원은 합리적인 듯 보인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을 감안하면 재원 마련도 다른 정부 때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인다.

관건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의 도덕적 해이와 예상되는 일차의료기관의 피해에 따른 의료시스템과 당연지정제에 대한 논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사, 보험사 등)의 이해관계의 조율도 필요하다.

보험사에겐 得보단 失

아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긴 이르다. 공사보험 협의제도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시장경제 하에서의 논리적 근거를 통해 규제 강화의 수위조절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보험사에겐 단기 호재보다 장기 악재 요인이 더 커 보인다.

정부는 금번 대책에서 예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민영보험사의 실손 보험 담보 영역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하며 보험료 인하할 수 있는 논리를 추가적으로 얻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개편 논의의 폭에 따라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나올 수 있는 신상품을 통한 보장성보험 시장 성장도 제한할 수 있다.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내용>

	현행	개선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비급여전환방식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 급여화	치료적 비급여 전면 급여(예비급여) 약제는 선별적으로 급여화
	이 외에는 모두 전액 본인 부담	환자 일부 부담(50~90%) 선별된 약제는 30~90% 부담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선택진료	진료비의 약 15~50% 추가 부담	폐지
상급병실	전액 본인부담(기본보험료 제외)	20~50% 본인 부담
간호간병	입원료 본인부담과 함께 사적 간병비용 부담	입원료 본인부담만 부담하여 기존의 1/3수준으로 부담 감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신포괄도입	공공의료기관 42개 비급여 인센티브 없음	민간포함 200개 이상(2022) 비급여 감축 인센티브 도입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비급여 판정 시 비급여로 잔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
<p>**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 제한해 실시</p> <p>**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 재정립=>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공사보험협의체(복지부, 금융위)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p>		
개인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치매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10%
검사비용	MRI, 신경인지검사 약 100만원 소요	20~40만원 수준으로 인하
노인치과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30%
노인외래		
본인부담	1만 5천원까지 1천 5백원 부담 1만 5천원 초과시 30% 본인부담(4500원 이상)	<예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 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 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아동입원		
본인부담률	연령에 따라 10~20% 부담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아동치과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1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소아재활		
어린이재활 인프라개선	어린이재활병원(민간) 서울 1개소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추진
여성		
난임 시술	전액 비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필수시술 급여(일부 약제, 검사 제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	모든 여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급여대상자	욕창예방방석: 지체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 척수, 뇌병변	뇌병변 장애 추가 신경근육질환 추가
소득수준에 비례해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현행	개선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대상질환	암, 심장, 뇌, 의귀난치질환	모든 질환
추가지원	없음	소득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 통해 지원
제도간 연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도록 수가체계 개선 등 통해 기능 재정립		
의료계 자발적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 보상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 안전, 수술, 분만, 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 추진		

투자 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6/07/01~2017/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72	97.73%
중립	4	2.27%
매도	0	0.00%